

“최대 10만 명 사망”... 베네수엘라, 7.2·7.5 연쇄 강진

베네수엘라에서 24일(현지 시간) 규모 7.2와 7.5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분께 베네수엘라 북부의 카리브해 연안 마을 모론 서부 지역에서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부터 불과 39초 후 첫 번째 진앙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5 지진이 이어졌다.

USGS는 지진 발생 깊이를 첫 번째 지진 21.9km, 두 번째 지진 10km로 파악했다.

진앙지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다.

이번 강진으로 카라카스 시내 건물이 크게 흔들리고 주민들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에 기여한 1821년의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는 베네수엘라 공휴일을 맞아 주민 다수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한 목격자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생겼고, 건물 입구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고 전했다.

아파트 밖으로 대피한 카라카스 주민 로베르토 가마스는 AP통신에 “건물이 정말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비현실적이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이 강했다”며 “건고 있었는데 몸이 이리저리 내던져지고 집안 모든 물건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카라카스 거리에는 소방차들이 출동해 있고, 일부 건물들은 외벽이 심하게 손상됐다. 또한 지진 직후 정전이 되고 인터넷이 단절된 상황도 알려졌다.

영상에는 밤이 깊어져 가는 와중에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잔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가족을 위한 구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들에 사는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은 친지들과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의 휴대전화 통신망이 두절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국영 방송에 출연해 강력한 연쇄 강진과 20여 차례의 여진 발생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나, 정확한 사망자나 부상자 수는 밝히지



카리브해 연안 마을 강타 여진 20여 차례 아수라장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포



24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며 일부 건물이 붕괴돼 대규모 참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않았다. 또 카라카스 외곽의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부 장관은 이번 지진의 진동이 여러 주에서 감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라카스의 알타미라 지역에서 주택과 건물이 붕괴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카베요 장관은 “치안 및 민간 지원 측면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수습하고 있다”며 “소방대와 경찰이 모두 소집됐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인명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USGS는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며 “막대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USGS는 사망자가 1만 명~10만 명일 확률을 40%, 1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14%로 각각 예측했다.

또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글:사진연합뉴스

中 CIPS에 달려 패권 흔들... 美 금융 제재 약화

하루 평균 거래 179조 원... 디지털 'mBridge' 사용도 확대

중국이 구축한 위안화 기반 금융망이 미국의 금융 제재 영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란의 원유 수출이 꼽힌다.

지난해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을 통해 최대 43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산 원유 거래 과정에서 결제는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로 이뤄졌다.

이란은 이 자금을 이용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태양광 패널을 포함해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자도 확보하고 있다.

위안화 무역은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을 통해 처리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 시스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2015년 출범한 위안화 기반 결

재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이후 CIPS의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7900억 위안(약 179조 원)으로 지난해 평균인 6800억 위안(약 154조 원)을 크게 웃돌았다.

러시아의 사례도 비슷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자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은 빠르게 위안화 중심으로 재편됐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현재 양국 무역의 90% 이상이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

된다. 약 80%가 달러로 이뤄지는 전 세계 무역 금융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자료에 따르면 위안화의 무역 금융 비중은 지난 5년간 세 배 증가해 올해 4월 기준 6%를 기록

했다. SWIFT 통계에 따르면 위안화는 올해

들어 달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무역 금융 통화가 됐다.

또한 중국은 2021년 출범한 디지털 결제 플랫폼 'mBridge'의 사용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위안화 등을 활용해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 간 직접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제재 영향력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당국이 엄격한 자본 통제를 유지하는 한 위안화의 국제화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목표가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무역·금융권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린스키 연구원은 “위안화 기반 금융 시스템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쉽게 만든다”며 “미국 정보당국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적에서 동지로”... 日 혼다·닛산 ‘동맹’

미래차 부품 공동 사용 협의... 2029년 탑재 목표

수익성 약화에 시달리는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개발 비용 절약을 위해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5일 전했다.

두 회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차세대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에서 부품 공유를 진행해 2029년 이후 각 사 차량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혼다와 닛산은 제작년부터 공동 연구를 해왔으며 차륜이나 거울, 브레이크 등을 제어하는 ‘전자 제어 유닛’을 공동으로 개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NHK는 혼다와 닛산이 한때 모색하던 경영 통합 협의를 중단한 이후에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중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비용 경쟁력을 높여 SDV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 테슬라나 중국 BYD 등 해외 자동차 제조사와 경쟁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부품 공유에 나선 배경에는 경영난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산은 작년 4~12월 결산에서 적자를 기록했으며 혼다는 2025년 4월~2026년 3월 4239억 엔(약 4조78억 원)에 달하는



우치다 마코토(왼쪽) 닛산 사장과 마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이 2024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적자를 냈다. 닛산은 내년까지 전 세계 직원 2만 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 내 5개 공장에서 일하는 사무직 1800명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자를 모집한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김소형 원방 좋은당黨

국내산 원료로 만든 건강한 여주진액, 정성껏 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유기농 여주 100%

인증번호: 제 13100651 호

인증서
인증구분: 유기농산물

유통기한: 2023.9.5 - 2024.8.4

매일! 챙기는 한 포의 루틴!
중·장년층에게도 꼭 맞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위한 작은 습관

유기농 여주 (국내산)

매일! 챙기는 한 포의 루틴!
중·장년층에게도 꼭 맞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위한 작은 습관

중·장년이라면 하루 한 포!
김소형 원방 좋은당 (80ml X30포)
일체의 화학 첨가물을 없이 100% 천연재료 사용. HACCP 인증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제조원: (주)엔트리 / 경상남도 양산시 외산1길 30 유통전문판매원: (주)윌리엄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길 1 남신빌딩 4층

생활 활력의 시작!
김소형 원방 좋은당으로 함께하세요!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김소형 원방 좋은당으로 느껴보세요!

김소형 원방 좋은당 여주진액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여주에서 유래한 유기농 여주만을 100% 담아냈습니다.

드시고 싶은 다양한 음식들, 김소형 원방 좋은당 여주진액 하루 한 포면 모두 OK!
그 외에 여주와 궁합이 잘 맞는 9가지 원료를 함유!

돼지감자 (국내산)

바나바 (국내산)

인진숙, 감초, 적약, 생강, 이모초, 영지, 대추, 속지황, 흑마늘

매일 한 포, 활기찬 하루의 시작!

100% 국내산 유기농 여주, 돼지감자, 구지뽕, 바나바를 조화롭게 배합

신중하게 선별한 원료를 조화롭게 배합하고, 세심한 과정을 거쳐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김소형 한의원(원장)

김소형 원방 좋은당과 함께 하시면 좋은 분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챙기고 싶은 분 / 달콤한 음식을 즐기시는 분 / 회식이 잦은 직장인 / 한식을 즐기시는 분 / 활동량이 적은 부모님 / 건강한 하루 루틴을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현대인의 식습관을 생각하며 국내산 유기농 여주와 돼지감자, 바나바, 구지뽕을 담았습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전통 원료진액으로 하루 한 포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1588-6232

농협 301-0280-1454-01 주식회사 윌가네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부혜택